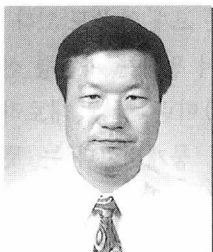




우리식물이 사라지고있다

-멸종위기식물-현황과 대책



최 명 섭

(산림청 임업연구원 연구관, 본회지문위원)



인간은 원래 자연 속의 한 생명체로서 그 속에 인간들이 잘 동화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인간이 속한 자연 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였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 땅에 자생하는 식물을 이용하여 먹고, 입고, 병을 고쳐왔기 때문에 우리 땅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우리 나라의 기후와 토질에 알맞아 우리 국민이 생활하는데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식물의 중

류는 약 35~40만종에 달하고 그 중 고등 식물이 약 25만여종에 달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자생하는 식물과 도입종을 합하면 5,700여종이 생육하고 있고 유사한 국토면적을 가지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식물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의 선교사나 외국 선박의 승무원들이 채집한 식물을 본국 또는 외국학자에게 보내어 서구에 소개한 것이 그 시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 나라는 일본



의 식민지배, 한국전쟁 등을 거쳐 지난 '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급속한 산업화 및 개발 등 식물을 포함한 자연에 영향을 미칠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던 '60년대에는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었던 바 이 시기에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인면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였다. 그 후 산업화, 공업화 및 인구밀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식물보전을 위한 보호방안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식물이란 환경의 절대적인지배를 받으며 자란다는 사실을 새삼 인지하고 나면 식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된다. 더욱이 지구촌은 자원경쟁 시대가 되어 세계 각국은 이 자원을 무기로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식물은 이 가운데서도 생태계의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멸종해 가는 식물에 대한 보존사업은 이러한 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생물 종 다양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를 여러 식물들이 그 가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 멸종위기식물의 현황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등식물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4,662종으로 단자엽식물이 842종, 쌍자엽식물이 2,815종, 양치·나자식물이 314종, 선대류가 691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적을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자생식물의 종수는 월등히 많은 편이다. 그 가운데 10%인 400종류가 희귀 내지 절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록도 있다.(이, 1983)

그러나 희귀 및 멸종 위기생물에 대한 관심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군의 하나 이지만 희귀·멸종 위기 식물에 대한 선정 및 보존 대책의 수립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희귀·멸종위기식물의 경우 학자에 따라서 그 인식이나 규정 범위가 달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희귀·멸종위기식물에 대한 선정은 자연보존협회의 박만규(박,1963) 및 이영노(이,1990)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는데 박은

93종, 이는 125종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이창복(이,1980)은 213종의 식물을 희귀·멸종위기식물로 발표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동식물을 선정, 지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식물은 58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목록을 살펴보면 박만규의 경우 양치류, 이영노 및 환경부의 경우 단자엽식물이 많이 선정되어 있고 이창복의 경우 목본식물이 많이 선정되어 식물의 선정에서 개인적인 견해에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제주도가 자생지인 솔잎란, 물부추, 고란초등 58종을 지정한 바 있고 산림청에서는 섬댕강나무, 미선나무, 구상나무 등 217종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복원사업의 의미

1993년 멸종위기동식물의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여 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에 규제를 받기 시작하였고 바로 10일전인 10월 3일을 기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 가



입서를 제출하였으니 이후 90일 부터는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노력에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해야 한다. 생물다양성보전이라는 최대의 과제가 생겨나면서 우리는 생물자원의 전국적인 정밀조사를 선행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 가운데 많은 자원들의 현지 내 또는 현지의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가 멸종위기 식물의 보전이고 두 번째가 이미 사라져간 식물의 정확한 복원이다. 이것이 곧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생물다양성 보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인류가 가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는 풍부한 자원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녹색의 별, 지구를 만들고자하는 노력들이라면 우리는 그간 선진국을 향한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이 땅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식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이 땅에는 많은 식물들이 설자리를 잃고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몇몇 종은 이미 한반도에서 사라졌거나, 곳 사라져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빌려쓰고 있는 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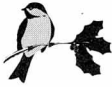
구상에 식물 종이 영원히 사라지게 한 장소와 원인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결국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하고 모든 국제적인 협상에서 대등한 자격을 잃고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 국내 멸종위기 생물 복원사업 현황

· 산림청 임업연구원 : 임업연구원내 홍릉수목원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수목원의 하나로 많은 수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몇 가지 수종 중 자생지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수목원의 현지외 보존으로 살아남은 회귀·멸종 위기 식물 총 12종 241본을 현지에 복원시킨 바 있다.

< 회귀 및 멸종 위기 식물 복원 >

복원년도	식물명	식재본수	복원장소
1990	청사조	4본	전북 군산
1991	산개나리	12	서울 북한산
	나비국수나무	10	서울 수락산
1992	선개야광나무	30	수원 칠보산
1993	죽절초	30	제주도 서귀포
1994	갯대추	30	제주도 애월읍
	칠보치마	30	수원 칠보산
1995	서울오갈피	5	서울 수락산
	깽깽이풀	20	서울 용마산
	박달목서	20	제주도 절부암
1996	문배나무	10	서울 아차산



· **자연보존협회** : 자연보존협회는 보존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전통 있는 기관중의 하나이다. 지난 수년간 전국의 주요 산, 도서지방 등 우리나라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멸종, 희귀식물, 위기식물의 현황과 분포지역을 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므로써 복원 사업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제주도 섬섬의 파초일엽, 1980년대 멸종위기에 처한 개느삼, 미선나무, 망개나무등을 대량생산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부하였다.

한국기자협회 : 1994년 복원 사업본부를 설치하고 울릉도 고추냉이, 설악산의 솜다리 복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협회 : 2000년 11월 11일 열린 제9회 국립공원대회 북한산 자연환경보전대회시 실시한 멸종위기 식물인 「산개나리」 복원식재 사업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기타 :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식물이 집약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제주

도에서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 흑나도풍난, 차걸이난 등의 난초류 복원을 비롯한 멸종 위기식물 또는 절멸된 종의 증식,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 그 밖에 한국 난협회가 주관이 되어 나도풍난, 풍난을 제주도의 상록 활엽수하에 복원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생난초 동호회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집계는 되지않고 있다. 그밖에 현지의 보존기관인 각 기관 내의 수목원이나 대학의 수목원, 식물원에 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증식시켜 멸종해 가는 식물의 복원은 계속된다고 보아야한다.

▷바람직한 복원대책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의 복원은 사라진 몇 개체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적응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생태적인 복원이 필요하며 자생지에 아주 절멸하기 전에 급격한 감소추세를 둔화 조절 하여 풍부한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높힐 수 있도록 복원되어야 한다. 자연이라고 하는 큰 흐름은 머



.....

무르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생태적인 천이를 고려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북방계 식물로서 남방 한계선상의 강원도 양구군 한전면 일대에 자생하는 천연기념물 개느삼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료 정책이 바뀌면서 양구일대 자생지의 산림이 울창해져, 극양수인 환경조건이 점차 파괴되면서 생육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점차 도태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변환경의 부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원대상 식물은 원산지의 확인, 종의 정확성 등 과학적인 검토 및 고증이 있을 후 복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광릉요강꽃이 사라진다고 해서 대만이나 일본의 것을 들여와 복원할 수는 없다. 복원개체는 가능한 한 자생지와 유사한 환경 조건에서 증식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복원사업은 전국의 식물관련 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서는 홍릉수목원에서 그 동안 전국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의 수집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충남의 천리포 수목원, 제주의 한라수목,



그외 각도 의 수목원에서 증식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길가에 자라는 한 포기의 풀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생각이 지배한다면 점차 더 많은 멸종위기 식물이 늘어 날 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일반국민에게 까지 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홍보하여 식물자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